

< 문학교육의 목표와 그 변천 >

1. 문학교육의 목표

1) 언어 능력 증진

- 일상어와 문학어의 공통점과 차이점.
- 문학을 통해 효율적이며, 적절한, 언어 능력 증진.

2) 개인의 (정신적) 성장

- 문학교육은 개인 자신의 사고와 습관, 태도 면에서의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.
(학습자 자신과 무관하게 바깥에서, 강압적으로 정해진 의도된 목표는 지양되어야 한다.)
- : 성장의 목표는, 가치의 다양성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개인 자신의 주체적 관점을 세우는 데 둔다. 또한 문학적 행동 습관화에 도달해야 성장. 곧, 개인의 사고와 행동 자체에 내면화 되어 대습관이 되어야 함.

3) 개인적 주체 확립

- 문학교육을 통해 '주체적이고, 자율적인 판단 능력'을 기를 수 있다.

4) 문화 계승과 창조 능력 증진

- 문학에는 해당 공동체의 삶의 방식, 가치관과 세계관, 정서등이 담겨 있다. 문화는 대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'의미화 체계'로서,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방식을 규정짓는다.

- 문학교육의 문화교육으로서의 의미

- ① '문화적 동질성' 확보. 공동체 회복.
- ② 문화 창조에 이바지.

5) 전인교육.

- 문학을 통해 정서와 인식, 미와 윤리를 모두 교육한다.

2. 문학교육 목표 변천론

1) 교수 요목기

- ① 언어 사용 능력과 문학 능력으로 국어능력 규정. (현재까지 이어지는 국어교육적 기초)
- ② 문학을 '문학사 교육'으로 규정.
"국문학의 사적 발달의 대요를 가르쳐, 국민의 특성과 고유 문화의 유래를 밝혀, 문화 사상의 우리 고전의 지위와 가치를 알림."
--> 문학교육을 "우리 문화를 창조, 확충"에 초점을 두어, 가치교육적 측면 강화.
특히, '국민 기르기'로서의 상상적 공동체 마련에 초점.
- ③ '읽기' 교육에서, 국어의 감상, 비평 등으로 현대문학.

2) 1차 교육과정기.

-문학 영역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, ‘말하기, 듣기, 쓰기, 읽기’의 과정에 골고루 다룸.
(가령, ‘읽기’--방송, 영화, 연극, 소설 등을 바르게 평가하고 그릇된 것을 알아 낼 수 있는
식견을 가지게 한다. 또한 ‘낭독의 형식과 문학적인 창작’ 강조. / 국민적 사상 감정을 도양
한다./ 인생의 반영으로서의 문학작품을 감상하고 창작하는 힘을 기른다. 연극 등으로 능동
적인 문학활동 강조.)

2) 2차 교육과정기.(생활중심, 진보주의적 문학교육)

: 1차 교육과정 연장. 단, 문학학습 외에, 읽기 영역 안에 고전 학습 독립.

-->고전 학습에서는 민족문화와 관련된 내용.

3) 3차 교육과정.

: 문학교육 강화. 단, 읽기 교육에서 가치관 교육으로의 중요한 통로. (지배 이데올로기 전파
로 주제별로 교과서 배열 등)

--> 일반적인 국어1과 국어2(고전 영역, 창작을 포함한 작문)

4) 4차 교육과정

: 현대문학이 독립 문학으로 격상.

-문학 지식 습득, 미적 능력 신장, 세계관 확충.

(“문학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시키고, 문학 감상력과 상상력을 기르며, 인간의 내
면 세계를 이해하게 한다. ”)

-현대 문학 목표: “문학작품을 여러 각도에서 감상하고 예술적 가치를 평가하며, 인간의
보편적 갈등과 정서를 이해하게 한다. ”

(문학을 미적인 것과 아울러, 현실과의 산물로)

4) 5차 교육과정

: 현대문학과 고전문학을 아울러, <문학>이 독립.

-목표는 4차와 대동소이. 대신 구체화.

“ 문학작품을 통하여 ①문학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갖추고 ② 창조적인 체험을 함으로
써 미적 감수성을 기르며 ③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게 한다. ”

(문학 지식 획득--> 미적 능력 계발 --> 세계관 확충)

-특징: 문학교육을 한국문학으로 대상. 민족 문학 발전에 초점.

5) 7차 문학교육 목표

-문학이 아닌, 문학 활동의 원리로. 활동 중심 교육 강조.

-문학 관련 지식이 문학 활동의 지식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.

- 기존의 ‘이해와 감상’에서 ‘수용과 창작’으로.

- ‘태도’ 관련 목표 중시--문학교육이 개인의 삶과 통합되어야. 또한 전체 공동체의
문학문화 발전과 통합되어야.